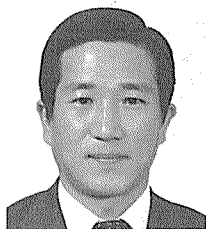


# 컴퓨터와 先進國

지금도 가끔 20년전 초기상태의 컴퓨터 활용 보급을 위해 이곳 저곳 뛰어다니면서 컴퓨터가 무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나름대로 뛰어 다니며 애썼던 일이 생각난다. 1967년 처음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몇몇 기초적인 응용에 사용되기 시작할 무렵, 이웃 일본에서 입수되는 관련 정보들의 내용 중 아직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무렵 이미 일본내 기업들 중 많은 회사들이 컴퓨터 활용범위를 깊숙히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그들은 회사내의 경영쇄신을 위해 컴퓨터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고 있었고 또한 컴퓨터 교육을 통한 인력자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려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한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에 교육을 보낸다거나 국내에 막 설립된 컴퓨터 학원에 수강시킨다거나 하는 형태로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였으니 지금 돌이켜 보면 20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반성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 그 무렵 미국의 모 컴퓨터 메이커에 그 당시로는 대형의 컴퓨터 도입을 위한 연수를 가서 그곳에 설치된 장비들이며 그들이 밤낮 교육·연구·토론을 하는 실상을 보고는 우리의 입장이 참담하게 느껴지는 심정이었다. 귀국길에 뉴욕에 있는 C 대학의 K 교수님을 찾아뵈었더니 장차 컴퓨터가 어떻게 발전해 간다는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 김길수

(주)東-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

그중에서도 미국내 기술진들이 책상위에 올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초소 규모의 크기에 능력은 그 당시 최대 컴퓨터에 맞먹는 것을 연구중이며, 대략 10년 후에는 상품화 되리란 예상을 듣고는 후진국의 초년생인 내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고 심지어는 그대로 주저 앉아 공부를 더해야겠다는 강박관념과 그래서 안된다는 책임감이 함께 머리를 혼란케 하였었다. 그후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을 향해 그 문턱을 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선진화를 위해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조직적인 연구·개발을 시도해 온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그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술의 격차를 통감하고 절망케 해 왔던가를 돌이켜 보고 그 대책을 합심하여 수립은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좀더 겸허한 자세로 과거를 반성하고 한걸음씩 보람된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므로써 컴퓨터 분야도 선진국 대열에 서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겠다.